

[1~2]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입니다. ‘조선의 온실’에 대한 글을 쓰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수: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온실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학생: 『조선왕조실록』을 읽다가 겨울에 임금님께 꽃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 네, 그렇군요. 15세기에 쓰인 『산가요록』에 ‘동절양채(冬節養菜)’, 말 그대로 겨울철 채소 가꾸기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온실을 짓는 방법이 나와 있지요.

학생: 대개 온실의 시작은 1619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양보다 앞서서 온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 그렇죠, 서양보다 약 170년이나 앞선 것이지요.

학생: 네. 그렇다면 조선의 온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수: (그림을 보여 주며) 이것이 조선 시대 온실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보다시피 삼면에 벽을 쌓습니다. 채광을 위해 남쪽에 45도 경사진 창을 내고, 거기에 기름종이를 바릅니다. 바닥에는 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흙을 깔습니다.

학생: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군요.

교수: 일반적으로 온실은 난방, 가습, 채광이라는 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선의 온실도 이를 충족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난방의 경우, 난로로 공기를 데운 하이델베르크 온실과 달리 조선의 온실은 구들을 데워서 지면의 온도를 25℃로 유지함으로써 뿌리가 잘 발육되게 하고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학생: (고개를 끄덕이며) 조선의 온실은 땅을 데운 것이군요. 그러면, 가습은 어떻게 했죠?

교수: 가마솥에 물을 끓여 가마솥과 온실 안을 연결하는 관으로 수증기를 공급했습니다.

학생: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왜 창에 기름종이를 발랐습니까?

교수: 그건 보온과 방수 효과를 위해서였지요.

학생: 혹시 기름종이를 사용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 기름종이는 한지에 비해 햇빛 투과량이 많아요. 또한 온실 표면에 맺힌 이슬은 아침 채광을 방해하는데, 기름종이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여 채소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아 잘자랄 수 있도록 했어요.

학생: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아주 유익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조선의 온실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선조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위 대화에 나타난 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질문하고 있다.
- ② 궁금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③ 교수의 설명을 요약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를 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교수의 설명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학교 신문에 실기 위한 회의 내용이다. 이를 반영하여 글을 쓴다고 할 때, ㉠~㉣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의 내용>

- 제목과 끝부분에 교수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을 반영하자.
- 내용은 온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전개하자.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온실에 대해 알려주자.
- 조선의 온실만이 지닌 특징을 부각하자.

제목: ㉠

I. 처음: 조선의 온실에 대한 소개 ㉡

II. 중간

- 1. 조선의 온실의 난방 ㉢
- 2. 조선의 온실의 가습
- 3. 조선의 온실의 채광 ㉣

III. 끝: 조선의 온실의 의의 ㉤

- ① ㉠은 ‘꽃을 사랑한 조선의 임금들’로 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산가요록’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에는 하이델베르크 온실과 달리 흙을 따뜻하게 했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어.
- ④ ㉣에는 남쪽에 45도 기울어진 창을 냈다는 내용과 기름종이를 통해 채광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⑤ ㉤은 조선의 온실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해야겠어.

[3~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침팬지들이 하는 털 고르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을 보여 주며)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간의 말로 하는 털 고르기’입니다. 먼저 말로 하는 털 고르기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기 위해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살짜리 침팬지는 한 살짜리 인간에 비해 우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침팬지보다 훨씬 미숙한 상태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훨씬 더 복잡하고 큰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는 뇌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A] 인간의 뇌 용량은 침팬지 뇌 용량의 3.5배나 됩니다. 소셜 브레인 이론은 인간의 뇌 용량이 급격하게 커진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뇌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졌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뇌 전체 무게 중 신피질의 무게 비율을 ‘신피질 비’라고 하는데, 신피질 비는 집단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프를 보여 주며) 인간은 신피질 비가 4, 집단 크기는 150~200 정도인데, 이는 다른 영장류에 비해 큰 값입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뇌가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뇌 용량은 집단 크기에 비례하게 된 것입니다.

영장류의 사회적 행동의 차이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침팬지가 서로 털 고르기를 해 주는 것은 사실 집단 구성원 간의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스킨십입니다. 만약 인간도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다른 영장류보다 집단 크기가 크므로 밥만 먹고 털 고르기만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일일이 털 고르기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소셜 브레인 이론가들은 인간이 털 고르기를 하는 대신 언어를 진화시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털 고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뇌는 큰 규모의 집단 내에서 효과적인 집단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옆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런 다음 우리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로 하는 털 고르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를 통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A]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이론을 근거로 삼아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 다음은 학생의 발표 연습을 들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 중 학생이 발표에서 실제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특별함을 강조하려면 ㉠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 비교 대상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 수치를 넣어서 정확성을 높이고, ㉣ 시각 자료를 통해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발표 끝 부분에서는 ㉤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발표자에게 한 질문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침팬지의 뇌 용량이 왜 점점 작아진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②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이 우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말로 하는 털 고르기의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④ 영장류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인간은 침팬지처럼 털 고르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 ⑤ 뇌 용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뇌 용량과 집단의 크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사람들의 불안 심리에 대해 조사하여 글 쓰기
- 예상 독자: 교지를 읽는 학생들
- 글 쓰는 목적: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 심리에 대해 알리고, 불안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제안함.

(나) 학생의 초고

최근 불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점점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된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장 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혹시 자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심지어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해져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곤 한다. 특히 학업에 대한 지나친 고민으로 생긴 과도한 불안은 학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여 학업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불안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험 기간에 느끼는 약간의 불안감은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불안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가)에 따라 (나)를 썼다고 할 때, 학생이 활용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안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류하고 있다.
 - ②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소년과 직장인의 불안을 대조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청소년들이 불안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7.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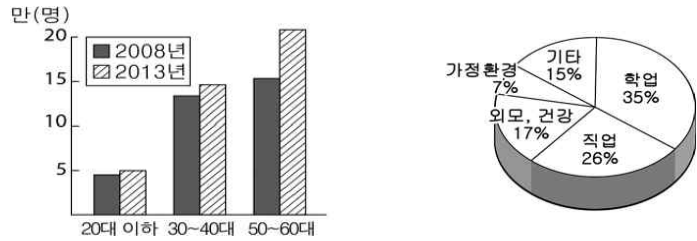
< 보기 >

① 문헌 자료

동화 속 알라딘이 마술 램프에서 요정 ‘지니’를 깨워 내듯이, 현대인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걱정들을 ‘램프’에서 불러내 스스로를 지나치게 괴롭히는 현상을 ‘램프증후군’이라고 한다.

② 통계 자료

1. 불안 관련 연령대별 진료 인원 2.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③ 인터뷰 자료

1. 회사원 인터뷰
“요즘은 분기마다 업무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중압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소화도 잘 되지 않고요.”
2. 전문가 인터뷰
“여키스-도슨 법칙’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일의 수행 능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어 과제 수행의 최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① ①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해야겠군.
 - ② ②-1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불안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는 인원이 많아지는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해야겠군.
 - ③ ②-2는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해야겠군.
 - ④ ③-1은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해야겠군.
 - ⑤ ③-2는 시험에 대한 불안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근거로 사용해야겠군.
8. 교지에 실을 (나)의 소개 문구를 만들고자 한다.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건 >

- 마지막 단락에 제시한 글쓴이의 관점을 반영할 것.
-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 ① 검은 점만 보지 말고, 흰 바탕을 보세요. 정직한 마음이 불안감을 지워 줍니다.
- ②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 불안감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③ 성적이 떨어져서 불안하십니까? 명상 요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 ④ 직선과 곡선,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직선보다는 곡선이 삶의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 ⑤ 과하면 독, 적당하면 약이 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9~10] 다음은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는 이번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복사를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3%는 집에 있는 복합기를, 64%는 학교 근처의 문방구를 이용하고, 나머지 13%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문방구에 가면 ㉠ 많이 들고, 선생님들께서 바쁘실 때에는 복사를 부탁드리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 집에 복합기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 그리고 저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교내 복사기 설치를 건의합니다. 물론 복사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사기를 유료로 ㉣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유료 복사기로 인한 수익금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사기 관리 문제는 도우미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관리를 ㉤ 맡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사기 설치에 대해 1학년 ○○○ 학생은 “복사기가 설치되면 교과서를 가져 오지 못했을 때와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유용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웃 학교인 ○○고등학교에서는 작년에 이미 교통 카드로도 지불이 가능한 유료 복사기를 설치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교내에 복사기를 설치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유료 복사기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보기>는 초고를 쓰기 전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학생1: 먼저 건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글을 쓰는 목적을 제시하자. 그리고 ㉠ 마지막에는 요구 사항을 다시 언급하며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학생2: ㉡ 설문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 주면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

학생3: 건의 내용이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 선생님과 인터뷰 내용을 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찾아 보는 건 어때?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했으므로 ‘비용이’를 넣는다.
 ②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③ ㉢: 접속어를 잘못 사용하였으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④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운영함으로써’로 고친다.
 ⑤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맡기면’으로 고친다.

11.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음 원리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 ㉠ 한여름, ㉡ 대관령에 올라 ㉢ 좋은 것만 가지려는 ㉣ 욕망을 버리고 나니, ㉤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답변]

- ① ㉠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ㄹ’로 시작할 때, ‘ㄴ’ 소리를 첨가하므로 [한녀름]이라고 읽습니다.
 ㉡은 ‘ㄴ’이 ‘ㄹ’ 앞에서 ‘ㄹ’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관녕]이라고 읽습니다.
 ㉢은 받침 ‘ㅎ’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므로 [조은]이라고 읽습니다.
 ㉣은 ‘ㄱ’이 비음 앞에서 발음이 바뀌므로 [용망]이라고 읽습니다.
 ㉤은 ‘ㅎ’과 ‘ㄱ’이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므로 [그러케]라고 읽습니다.

고 1

12.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너는 ㉠ 무얼 좋아하니?
- ㉡ 이건 값이 너무 비싸다.
- ㉢ 너희 사진은 어디에 있니?
- 나는 항상 ㉣ 여기에 있을게.
- ㉤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 ① ㉠ - ㄱ ② ㉡ - ㄱ ③ ㉢ - ㄴ
 ④ ㉣ - ㄴ ⑤ ㉤ - ㄴ

13. <보기>의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과제: 다음 예문은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를 통해 띄어쓰기 규정을 알아볼까요?
 ㉠ 너는 일밖에 모르니?
 ㉡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
 ㉢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해.
 ㉤ 청군 대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했다.

- ① ㉠: ‘일’과 ‘밖에’를 붙여 쓴 것을 보니, 조사는 붙여 쓰는군.
 ② ㉡: ‘두’와 ‘자루’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군.
 ③ ㉢: ‘웃고만’과 ‘있었다’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본용언끼리는 띄어 쓰는군.
 ④ ㉣: ‘아는’과 ‘척’을 띄어 쓴 것을 보니,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군.
 ⑤ ㉤: ‘청군’, ‘대’, ‘백군’을 각각 띄어 쓴 것을 보니, 두 말을 이어 줄 때에 쓰이는 말은 띄어 쓰는군.

14. 다음은 단어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끝다 [끝:-] ㉠

① [···을]

㉠ 바닥에 댄 채로 잡아당기다.
 ㉡ 의자를 끄는 소리가 시끄럽다.
 ㉢ 시간이나 일을 늦추거나 미루다.
 ㉣ 시간을 끌지 말고 하렴.

② [···에서 ···을]

어느 곳에서 원하는 곳에 이르도록 전선 따위를 늘리다.
 ㉤ 옆집에서 전기를 끌어 쓴다.

- ① ‘끝다’의 첫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되는군.
 ② ‘끝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의어이군.
 ③ ‘끝다①-㉠’의 유의어로는 ‘지연하다’가 가능하겠군.
 ④ ‘끝다②’의 용례로 ‘주방에서 수도를 끌어 물을 받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⑤ ‘끝다①’은 ‘끝다②’와 달리 문장 구조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군.

15.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처럼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중의적 표현이라 하고, 이런 문장들을 ‘중의문’이라고 한다. 문장이 중의성을 띠게 되면 정확한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므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 ① 그는 그녀와 작년에 결혼을 했다.
 ② 형은 나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
 ③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④ 그녀는 사과 한 개와 배 두 개를 샀다.
 ⑤ 그는 고향의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한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테크네’에서 유래하였다. ㉠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적인 활동을 에피스테메,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생산해 내는 실용적인 활동을 테크네로 구분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 등은 어떤 이론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의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16세기 영국 철학자인 ㉢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善)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필두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하였지만,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과 망원경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때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령 맨눈으로 황금빛 보름달을 관찰하는 경우,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을 관측하는 경우, 이때 각각의 도구를 통해 드러나는 달의 존재 의미는 달라진다. 첫 번째 달은 시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두 번째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세 번째 달은 특정한 광물질의 보고(寶庫)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에 대한 상반된 철학적 이론들을 절충하고 있다.
- ② 기술에 대한 철학적 쟁점들을 문답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기술에 대한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 ④ 기술에 대한 관점들을 동시에 소개한 뒤 그중 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 ⑤ 기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설명한 후 근거를 들어 각각을 비판하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법률을 테크네로 구분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기술을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8. ㉣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인간의 손을,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동물은 기계일 뿐이다.
- ③ 인간의 신체는 스프링을 감는 기계이며, 이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 ④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 ⑤ 인간에게 종속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9. 윗글의 하이데거(A)와 <보기>의 돈 아이디어(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돈 아이디어’는 기술이 ‘나’의 확장된 신체 일부로 체현되어 ‘유사-자아’가 된다고 보았다. 이때 기술은 비중립적인 존재로 ‘나’와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때, 달 표면에 관한 특정한 시각 경험은 확장되겠지만, 동시에 맨눈으로 달을 바라보았을 때의 경험은 축소된다. 기술로 인해 ‘나’와 세계의 관계는 일부 바뀌고, ‘나’의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 ① (A), (B) 모두 기술을 비중립적인 존재로 보고 있군.
- ② (A), (B) 모두 기술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③ (A)와 달리 (B)는 기술을 확장된 신체의 일부로 보고 있군.
- ④ (B)와 달리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군.
- ⑤ (A)는 기술을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로 본 반면, (B)는 기술과 인간을 공생적 관계로 보고 있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도시에 위치한 마트는 대도시의 마트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이는 ‘전략적 공약’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A] ‘전략적 공약’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도시에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연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매장을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소도시에 먼저 진출한 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성에 비해 과잉 투자로 비칠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물론 소도시에 처음 진출한 대규모 마트의 단기적 이익은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사의 진입을 ㉠ 차단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상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가시성과 인식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이 실행될 것이라는 충분한 믿음을 주는 신뢰성이 필요하다. 이 중, 신뢰성을 ㉡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퇴할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배수진 전략’이 있다. 일례로 유명 미술가가 몇 장의 판화 작품만을 제작한 후 공개적 장소에서 그 판화의 원판을 부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원판으로 동일한 작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계약 내용을 통해 기업이 기존에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어떤 기업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할인 혜택을 ㉢ 부여하는 경우, 동일한 계약을 맺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계약 준수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사는 해당 기업이 계약 내용을 ㉣ 준수할 것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공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의 독립적 대상에게 위임해 번복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특정 수준의 물가 유지를 공약한 정부는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경우, 화폐의 유통량을 ㉤ 확대하여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면 물가가 인상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화폐 유통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에 두는데 이것이 바로 권한 위임의 사례이다.

20.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전략적 공약의 개념
- ② 전략적 공약의 유래
- ③ 전략적 공약의 목적
- ④ 전략적 공약의 성공 요건
- ⑤ 전략적 공약의 활용 사례

21. [A]에 제시된 ‘전략적 공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당 기업의 선택 범위를 넓힌다.
- ② 해당 기업의 시장 분석을 방해한다.
- ③ 경쟁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높인다.
- ④ 해당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 준다.
- ⑤ 경쟁 기업의 해당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대형 항공기 시장을 독점했던 ‘A사’는 초대형 항공기 ‘A1’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B사’가 그동안 주력해 왔던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접고 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기 ‘B1’의 개발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 후, 개발 단계에서 이미 여러 항공사와 60여 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A사는 초대형 항공기의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 ① A사가 ‘A1’의 개발 계획을 포기한 것은 B사에 의사 결정 권한을 위임한 사례라 할 수 있군.
- ② A사가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B사의 결정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군.
- ③ B사가 초대형 항공기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접은 것은 배수진 전략으로 볼 수 있군.
- ④ B사가 ‘B1’의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자사의 선택에 대한 외부의 인식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군.
- ⑤ B사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B1’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사가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군.

23.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막아 ② ㉡: 얻는 ③ ㉢: 받는
- ④ ㉣: 지킬 ⑤ ㉤: 늘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나단 스유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는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작게, 거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크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왜 불가능할까?

우선, 면적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변의 길이가 1m인 주사위의 표면적은 $1\text{m} \times 1\text{m} \times 6(\text{개}) = 6\text{m}^2$, 부피는 $1\text{m} \times 1\text{m} \times 1\text{m} = 1\text{m}^3$ 이다.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표면적은 24m^2 , 부피는 8m^3 로 커진다. 즉 길이가 L배 길어지면 표면적은 L^2 , 부피는 L^3 에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면적-부피의 법칙’이라 한다. 이 법칙은 밀도가 일정하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바뀌는 경우라면 물체가 어떤 형태이든 그대로 적용된다.

소인국 사람과 거인국 사람에게도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걸리버의 키와 몸무게를 174cm, 68kg이라고 가정하여 이 법칙을 적용해 보면, 소인의 키는 걸리버의 $1/12$ 인 14.5cm이고, 거인의 키는 걸리버보다 12배 더 큰 약 21m이다. 물체의 밀도가 일정하다면 무게는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인은 걸리버의 $1/12^3$ 인 40g, 거인은 걸리버보다 12^3 배 더 무거운 117t정도 **㉠**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인국 사람과 거인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A] 인간과 같은 항온 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산해야만 한다. 그런데 세포의 대사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면적-부피의 법칙’을 적용하면 소인국 사람은 걸리버에 비해 부피는 $1/12^3$ 로, 표면적은 $1/12^2$ 로 줄어든다. 이는 에너지 생산량은 $1/12^3$ 이나 줄었는데 몸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1/12^2$ 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진 소인국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거인국 사람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동물은 근육의 힘으로 무게를 지탱하는데,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만일 근육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몸의 길이가 2배가 된다면, ‘면적-부피의 법칙’에 따라 근육 단면적이 2^2 인 4배가 되어 힘의 세기도 4배로 커지게 된다. 거인국 사람은 걸리버보다 12배 더 크기 때문에 다리 힘의 세기는 12^2 배 늘어나지만 무게는 12^3 배 늘어난다. 이는 거인국 사람의 무게가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의 세기보다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거인국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땅에 주저앉게 될 것이다.

크기는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크기는 생명체의 생존 방식과도 연관이 깊다. 만약 ㉡ 『걸리버 여행기』의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은 결코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와 생존방식을 지니고 있지 못할 것이다.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5. [A]를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과학 수행 과제: 베르그만의 법칙과 그 사례 조사하기

- 베르그만의 법칙 :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 동물은 같은 종(種)일 경우 추운 곳에 살수록 일반적으로 몸의 크기가 크다.
- 사례: 추운 지역에 사는 흰꼬리사슴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흰꼬리사슴보다 크다.

※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긴 궁금증

- 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은 몸의 크기가 더 클까?

※ 문제 해결 과정

항온 동물의 열 발산은 몸의 표면에서 이루어진다.

↓

↓

추운 지역에 사는 항온 동물은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다.

- ①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 ②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커진다.
- ③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체외로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
- ④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에너지와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양은 같아진다.
- ⑤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에너지에 대한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비율은 작아진다.

26. 윗글을 읽고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인국 사람은 대사 활동을 줄일수록 생존에 유리하겠군.
- ② 거인국 사람은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가 작아지겠군.
- ③ 소인국 사람은 가늘어진 다리로 인해 땅에 주저앉게 되겠군.
- ④ 거인국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굵어야 걸을 수 있겠군.
- ⑤ 소인국 사람은 근육의 단면적을 늘려야만 움직일 수 있겠군.

27.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녀의 반지는 값이 많이 나가 보인다.
 - ② 차가 시동을 놓자 천천히 앞으로 나가다.
 - ③ 그는 이미 10년 넘게 한 직장을 나가고 있다.
 - ④ 한번 든 독감이 겨우내 나가지 않아 고생을 했다.
 - ⑤ 기사가 신문에 나가자 사회가 온통 들쭉신 듯했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옥 공간은 막히지 않고 순환한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복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이며 그 형식도 여러 가지이다. 때로는 그 길이 방끼리 통하기도 하고 마당과 대청마루를 건너기도 한다. 막으면 방이 되지만 그 막음이란 것이 콘크리트 벽처럼 앙다문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틀 수 있다. 방과 방 사이에 문이 난 경우도 제법 많아 문을 트면 길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옥은 사방으로 적당히 뚫려 있고 적당히 막혀 있다.

한옥 공간이 순환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고 하나로 ‘통(通)’한다는 뜻이다. ‘원(圓)’은 완전 도형이라 해서 동서양 모두에서 최고의 상태로 간주했는데 한옥에서는 이를 공간에 적용해서 막힘 없이 둥글둥글 도는 동선 구조로 만들어 냈다.

‘원’에 ‘통’을 결합해서 ‘원통’한 공간으로 만들어 낸 경우는 한옥 밖에 없다. 원통은 원처럼 둥글어서 통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뒤 돌아서는 일 없이 직각으로만 꺾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대청으로 오르면 방으로 들어간 뒤 옆방으로 이어 가거나 방 밖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다시 대청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한 공간은 자연히 ‘통’하게 되어 있으니, 한옥은 ‘원’이라는 것에서 기하학적 형상을 읽은 것이 아니라 ‘통’하는 가능성을 읽은 것이다.

한옥의 원통 구성은 ㉠ ‘외과 증식’의 방식으로 발전해 온 한옥의 형성 과정과도 관련이 깊다. 한옥의 평면 구성을 보면 개별 채에서부터 한 번 꺾인 ‘ㄱ’자형, 두 번 꺾인 ‘ㄷ’자형, 세 번 꺾여 에워싸는 ‘ㄱ’자형, 에워싼 다음 한 번 더 뻗어나간 ‘ㅁ’자형 등 그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 이처럼 씨앗이 발아하듯 방 하나의 기본 공간 단위가 밖으로 증식하면서 분할하는 것이 외과 증식이다. 이는 윤곽을 먼저 정하고 안으로 잘라 들어가며 구성하는 서양의 ㉡ ‘내과 분할’ 구성과 반대되는 한옥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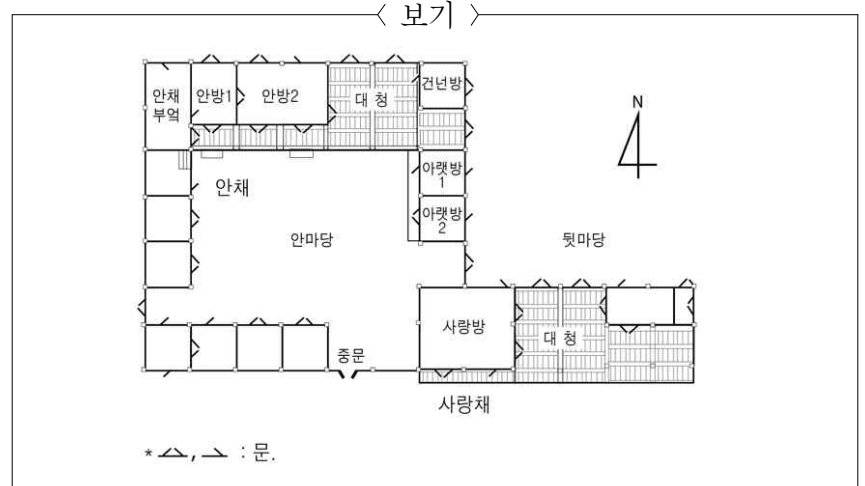
이러한 한옥 공간에서는 여러 공간을 거쳐 가는 돌아가기와 최단 거리로 가는 질러가기가 모두 가능하다. 돌아가는 동선은 여러 개인데, 이는 이동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동의 목적과 성격, 이동하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 상태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동선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옥에는 급할 때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다.

이처럼 한옥은 공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옥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안팎의 분별을 없애 어울림을 추구하려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28.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옥 공간의 의미
 - 안팎의 분별을 없앤 원통의 공간
- ② 한옥 구조의 특징
 - 기하학적 형상을 중심으로
- ③ 주거 형태의 변화
 - 한옥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 ④ 한옥과 서양 건축
 - 외과 증식과 내과 분할의 비교
- ⑤ 동선 구조의 효율성
 - 돌아가기와 질러가기의 조화로운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안방1과 안방2 사이는 상황에 따라 문을 트면 길이 날 수도 있겠군.
- ② 중문에서 안방1로 가기 위해 안채의 대청에서 안방2를 통해 가는 것은 질러가기에 해당하겠군.
- ③ 사랑방에서 뒷마당으로 나가 사랑채의 대청을 통해서 처음 출발했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겠군.
- ④ 안채 부엌에서 사랑방으로 가는 길은 이동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군.
- ⑤ 안방2는 대청, 안마당, 안방1 등과 통할 수 있어 사방으로 적당히 뚫려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꺾임의 방법에 따라 구성 방식이 다양하다.
- ② ㉠은 공간의 윤곽을 먼저 정한 뒤 내부를 구성한다.
- ③ ㉡은 기본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이 증식하면서 분할한다.
- ④ ㉠은 ㉡과 달리 분할의 방식에 따라 건물의 구조가 결정된다.
- ⑤ ㉡은 ㉠과 달리 공간이 뻗어 나가는 방향에 따라 동선 구조가 생긴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桂浪春水足鰻鱺 계랑 봄 바다에 뱀장어도 많을시고
 櫂取弓船漾碧漪 푸른 물결 헤치며 활선이 떠나간다.
 高鳥風高齊出港 늙새바람 드높을 때 일제히 출항해서
 馬兒風緊足歸時 마과람 급히 불 때 가득 싣고 돌아오네.
 - 정약용, 「탐진어가(耽津漁歌) 1」 -

(나)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님 쳐 신 들메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버려 들러 매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싹*을 베거나 자르거나 지게에 짊어져
 지팡이에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도 다 비우고 꿈방대
 를 툭툭 털어 입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흥얼대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하
 며 어이 같꼬 하더라
 - 작자 미상 -

*들메고: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밭에다 끈으로 동여매고.
 *싹: 댤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32.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棉布新治雪樣鮮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黃頭來博吏房錢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漏田督稅如星火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三月中旬道發船 삼월 중순 세곡선(稅穀船)*이 서울로 떠난다고.
 - 정약용, 「탐진촌요(耽津村謠)」 -

*이방, 황두: 지방 관리.
 *누전: 토지 대장의 기록에서 빠진 토지.
 *세곡선: 세금으로 바친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

- ① (가)는 <보기>와 달리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② <보기>는 (가)와 달리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가)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보기>는 과거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한 작품들은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리며,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고단한 노동 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 ① (가)의 ‘봄 바다’로 ‘뱀장어’잡이를 나서는 모습은 어부의 일상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나)의 ‘콧노래’나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는 것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바다’와 (나)의 ‘산속’은 서민들의 노동 현장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마과람’과 (나)의 ‘석양’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군.
- ⑤ (가)의 ‘푸른 물결 헤치며’와 (나)의 ‘베거나 자르거나’는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윽고 황공이 중국으로 떠났다. 계모 박씨는 황공이 자신이 낳은 월성과 전처 자식인 월선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 준 것 때문에 월선을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월선을 불러,
 “부친께서 나와 월성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 주셨으니 너는 외당(外堂)에 세간을 차려 노복들과 함께 농사 지어 먹고 살아라.”
 하고 쫓아내었다.

월선은 할 수 없어 박씨가 시키는 대로 외당으로 나갔다.
 이때는 춘경기(春耕期)인지라, 박씨가 곡식을 내어 월성에게는 좋은 씨를 주고 월선에게는 삶은 씨를 주었다.

이때 각자 모를 심었는데 월성의 모는 잘 자라고 월선의 모는 썩어서 나지 않고 난데없는 박 한 포기가 나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은 이종(移種)*했는데 월선의 모만 썩고 없으니 노복들이 말하였다.

“마님 모와 도련님 모는 잘 되어 이종하였는데 애기씨 모는 나지 않고 박 한 포기가 났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월선이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노복에게 말하였다.

[A] “내 운명이 박복(薄福)한 게지.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하리?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니, 박한 포기라도 잘 키우도록 해라. 심지 않은 박이 난 일은 범상치 않으니, 두고 보자.”
 하니, 노복들이 명령대로 하였다.

논 가운데 난 한 포기 박은 사방으로 자라서 박이 수천 개나 되었다. 그렇게 팔구월이 되어 월선이 노복에게 그 박을 따오라 하니, 박이 수천 동이었다. 계모 박씨도 추수하여 곳간을 채우니 곡식이 수천 석이 되었다. 월선은 수천 개의 박을 추수하여 곳간에 채웠다. 이를 보고 노복들이 불평하였으나 월선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월성이 누이의 농사가 실패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노복에게 황조 삼십 석을 보내었다. 월선이 동생에게 고마워하며 시비(侍婢)를 불러 박을 따 오게 하여 그 박을 깨어 보니, 그 안에는 백미(白米)가 가득하였다. 월선은 하늘의 뜻인 줄 알고 가난한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월선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하며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씨는 무녀에게 들은 대로, 월선에게 약을 먹여 수태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 후 월선이 낙태한 것으로 꾸며 황공에게 월선을 모함한다.

월선이 월성을 앞세우고 부친 앞에 나아가니, 승상이 대로(大怒)하며 말하였다.

“이 몸쓸 년아, 양반의 자식이 그런 불측한 행실을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이렇게 말하면서 승상은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 하며 다시 말하였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넌들 어찌 살겠느냐? 너를 죽이고 나도 따르리라.”

하고 월선의 머리를 잡아 었치니, ㉠ 월선이 었드러지는 거동을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월성이 망극하여 월선의 등에 었드러져 울며 말하였다.

“아버님은 잠깐 화를 참으시고 소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옵소서. 누이가 어려서부터 바깥출입이 없었고 노복들도 날마다 보지 못하였으니 외인(外人)의 출입이 없사오니 깊이 생각하옵소서. 일의 전후사정을 차차 보옵소서.”

월성이 빌기를 마지 아니하였으나, 승상이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때에 월성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박씨가 시비 윤행을 불러 말하였다.

“너 남복(男服)을 입고 월선의 방에 있다가 우리가 문 밖에 가거든 문을 열치고 달아나라.”

윤행이 남자의 옷을 입고 월선의 방에 있다가 박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거짓 놀라는 체하고 도망하니, 승상이 그 놈을 보고 뒤를 쫓아갔으나 부질없었다.

이때 박씨가 거짓 놀라는 체하고 었드러졌다가 말하였다.

“이런 흉악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저러하고 무슨 말을 하리오?” 또 승상에게 말하였다.

“친정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은 보지 못하였으니 처분대로 하소서.”

이어 박씨가 집안으로 들어가니 승상이 한 말도 못했다. 월성이 변명하니 승상이 더욱 분하여 말하였다.

“이제 속절없다.”

이어 승상이 칼을 들고 월선을 치려 하니, 월선이 정신이 아득하여 땅에 었드러져 기절하였다. 월성이 실색(失色)하여 울며 달려들어 월선을 덮어 안고 한 손으로 칼을 붙들고 애걸하며 말하였다.

“아버님은 잠깐 분노를 참으소서. 저를 보아서라도 누이를 살려 주옵소서. 어찌 자식의 몸에 칼을 대어 유허(流血)을 내리오? 누이가 죽으면 동생인들 어찌 참혹한 것을 보리오? 아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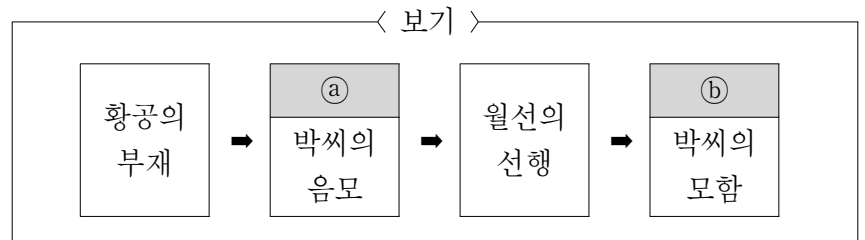
[B] 은 나를 생각하여 죽이지 마시고 오늘 밤에 소식 없이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되 남이 모르게 하옵소서. 또 남이 묻거든 간밤에 죽었다 하고 선산(先山)에 허장(虛葬)*하오면 무사하리다. 소자에게 말기시면 멀리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며 월선을 안으니 오누이의 화목한 거동을 차마 보지 못할 정도였다.

- 작자 미상, 「황월선전」 -

*이중: 모종을 옮겨 심음.
*허장: 거짓으로 장사를 지냄.

34. 윗글의 흐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공의 재산 분배에 대한 박씨의 불만이 ㉠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② ㉠로 인한 월선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에는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드러나 있다.
- ③ 박씨는 ㉡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월선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다.
- ④ ㉡에서 월선은 박씨의 모함이 황공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여기고 있다.
- ⑤ 월성은 ㉠과 ㉡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월선을 도와주고 있다.

35.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B]는 상대방을 비꼬면서 말하고 있다.
- ④ [A]는 격양된 말투로, [B]는 차분한 말투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권위에 기대어, [B]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36. ㉠의 상황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 ② 목불인견(目不忍見)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안하무인(眼無無人)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앉은 멧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나)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A]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 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솥들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발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축축했다.
—저어,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엔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B]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께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짓든 데라서
멤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던 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C]
세 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세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 나희덕, 「방을 얻다」 -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시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가 자신과 화해하는 공간이다.
- ② ㉡은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이다.
- ③ ㉠, ㉡은 모두 '나'가 현실의 아픔을 대면하는 공간이다.
- ④ ㉠은 '나'에게 기다림의 공간이고, ㉡은 '아주머니'에게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 ⑤ ㉠은 '나'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공간이고, ㉡은 '아주머니'에게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39. (나)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방을 얻으러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동선을 카메라의 시선으로 따라가야겠군.
- ② [A]에서 '나'가 들어서는 집의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옥과 마당,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야겠군.
- ③ [B]에서 '아주머니'가 한 말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방의 모습과 집안 내력이 담긴 장면을 오버랩으로 처리해야겠군.
- ④ [B]에서 방에 대한 '아주머니'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정갈한 마루를 클로즈업해야겠군.
- ⑤ [C]에서 그 방을 얻고 말겠다는 '나'의 다짐을 드러내기 위해 내레이션을 활용해야겠군.

고 1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순이는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도 별로 없었다. 책을 몇 번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녔는데, 아침에 책상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저녁때 그대로 들고 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기형에게만은 어느 때, 그것도 우연히 보여 주는 수가 있었다. 영어 또는 불어로 된 시집이거나 어려운 한문이 많은 문학 평론집 등속이어서 기형이를 더욱 야코죽게 만들었다.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세계였다. 그는 가끔 기형이를 학교 뒷산으로 끌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좀처럼 이야기를 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냥 한참을 앉아 있다 간 말없이 혼자 터덜터덜 앞서 내려가기 쉬웠다.

어느 날은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다 말고 불쑥 묻는 수도 있었다.

“기형이. 넌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 뭐가 생각나니?”

㉠ 너무 어처구니 없는 물음에 기형이가 당황해서 그를 말뚱히 쳐다보면, 그는 어이없게도 피식 웃으며 판전을 피웠다. 너한테 그런 걸 묻는 내가 잘못이라는 태도였다. 시를 쓴다는 소문 또한 들았거늘, 도무지 그런 걸 볼 수가 없었고, 기형이 엇비슷이 물어볼라치면 크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뭐 그까짓 것 어찌고 하면서 어물쩍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형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 그때까지 아무도 그의 집을 가 보았다는 사람이 없고 보면, 그가 기형이를 자기 집까지 끌고 간 것은 조그마한 사건이라면 사건이었다. 물론 작은 지방 도시였으므로, 그의 집안이 어떻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그 집안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친구는 드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동경 유학을 한 분으로 고장에서든 꽤 쳐주는 인텔리였으나 해방이 되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남겨 놓은 유산이 튼튼하여 생활은 유복한 편이었다.

광순네 집은 오래된 고가답게 그 안도 우중충하리만큼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잔잔했다. 전체적으로 무겁고 끈끈한, 기운이 감돌았다. 기형이가 제일 놀란 것은 광순네 아버지가 썼다는 서재였다. 그의 아버지는 경제학을 했던지, 대부분 일본 말로 된 그쪽 서적들이 네 벽을 거의 차지하고 남았다. 그중의 상당 부분은 문학 서적들이었다. ㉢ 광순이는 특별히 서재에 안내해 주겠다는 표정을 감추고, 극히 천연스럽게 그 방으로 기형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대수로운 것이 못 된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앉기를 권했다. 일단 길이 트이자 광순이는 기형이를 자주 집에 초대했고, 어떤 때는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기도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동창회에서 자기소개를 꺼리던 광순은 얼마 후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국영 기업체의 이름이 새겨진 노란 봉투를 끼고 기형을 찾아온다. 이후 광순은 기형을 다시 찾아와 잡지 출간을 위한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간다.

광순이는 그 뒤에도 기형이를 찾아왔다. 이번에 끼고 온 노란 봉투는 그전 것보다 더 뽀뽀했다. 다방에 앉아서도 봉투를 뒤집지 않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봉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양으로 미루어 요전의 국영 기업체 봉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형은 그가 또 잡지 건을 꺼낼까 봐 내심 조마조마했다. 그 일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될 성싶지 않은 데다, 그런 걸 말고 나설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

다. 그는 다행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은 눈치였다. ㉣ 웬만하면 기형이 쪽에서 물어볼까도 했으나, 그가 너무나 천연스럽게 앉아 있는 바람에 먼저 말을 붙이기도 멋쩍었다.

“자네 월급 얼마씩 받고 있나?”

담배를 한 대 후 내뿜고 난 광순이는 밀도 끝도 없이 불쑥 내뺀고 천장을 쳐다보았다. 기형이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를 말끔히 응시했다.

“아니 그냥..... 사실은 내 친척뻘 되는 사람이 이번에 무역회사를 하나 차렸어. 그런데 섭외 과장을 맡을 사람을 하나 구해 달라는 거야.”

“자네더러.”

“그렇지.”

“그거 잘됐군. 자네가 직접 들어가지 그래.”

“에 이 사람. 내가 무역 회사 과장 나부랭이나 하고 있을 성 싶은가.”

㉤ 광순이는 기형이를 가볍게 나무라며 짐짓 정색을 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자네를 생각했지. 어느 모로 보나 자네라면 적임일 것 같아. 아무렴 지금 출판사 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데?”

“좀 뭇한 소리지만 아무래도 밀천이 좀 들어야 할 것 같아. 저쪽에서는 사람만 든든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런가. 성의를 보여야지.”

요컨대 돈을 써서 한자리 하지 않겠느냐는 뜻인 듯했다. 기형이는 이 친구가 이처럼 무너질 수가 있을까 싶어 그의 면상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의문이니와, 있다손 치더라도 감히 광순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뻘뻘 보이는 얄은수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기껏 생각한다는 게 이 정도인가 싶어 오히려 섭섭했다. 허세라도 좋고 아이들 문자대로 똥폼도 좋았다. 왜 더 좀 그럴 듯하게 사술을 쓰지 못할까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지금까지 기형이 생각해 온 광순이는 더 좀 오기 덩어리라야 했다. 무시하고, 재고, 웬만한 건 알아 뚫어야 했던 것이다.

- 최일남, 「노란 봉투」 -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고조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에는 광순에 대한 기형의 실망감이 드러나 있다.
- ② [B]와 달리 [A]에는 광순에 대한 기형의 연민이 드러나 있다.
- ③ [A]에서 발생한 광순의 문제가 [B]에서 해결되고 있다.
- ④ 기형은 [A]에 나타난 광순의 태도를 [B]에서 비난하고 있다.
- ⑤ 기형은 [A]에서 광순에게 느낀 열등감을 [B]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기형의 반응에 광순이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 ② ㉡: 광순이 기형을 여느 친구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 아버지의 영향력을 감추고 싶어 하는 광순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④ ㉣: 예상과 다른 광순의 태도에 아쉬워하는 기형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⑤ ㉤: 광순이 기형을 평소에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음이 드러나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고 허황된 말과 행동을 하는 부정적 인물을 제시한다. 이러한 인물의 속물적인 면이 강화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성이 상실된 세태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 ① 노란 봉투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가장하는 광순은 속물적인 면을 지닌 부정적인 인물이겠군.
- ② 광순이 동창회에서 자기소개를 꺼린 것은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광순이 자신을 무역 회사의 과장이나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황된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광순이 기형에게 돈으로 과장 자리를 사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군.
- ⑤ 투자자를 구해 달라는 광순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기형의 모습을 통해 인간성이 상실된 세태를 보여 주고 있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다섯 명의 시민들은 낙원이라 불리는 신탄라국으로 가기 위해 선장에게 돈을 주고 밀항한다. 그들은 배 밑 창고실 안에서 숨어 지내는데, 보이지 않는 선장이 보내는 경보종과 신호등 불빛에 따라 통속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가: 우리 제각기 자기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조사해 보아야 하겠소. 아무래도 다른 놈들의 코에 자꾸만 강하게 느껴지는 냄새가 있는 모양이오. 이번처럼 길고 긴 경보종 울림은 나쁜 징조야. 자, 여러분 조사해 봅시다.

(마를 제외한 가 나 다 라, 코를 흥흥거리며 자기 몸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가: 더 정밀하게 조사해 봐요.

다: 네.

마: (냄새 맡고 있는 남자들의 이상한 행동을 바라본다.)

나: ㉠ 내 몸에선 아무 냄새도 나질 않아.

가: 내 몸에서두.

다: 나도 그래요.

라: (울상을 짓고) 불행하게도 내 몸에선 냄새가 납니다.

가, 나, 다: (깜짝 놀라며) 어떤 냄새요?

라: (주저하다가 기죽은 조그만 목소리로) 소금에 절인 정어리 냄새 같아요.

가, 나, 다: (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단났군. 당신 때문에 우린 모두 죽게 되었소!

라: (절망적으로 부르짖는다.) 오, 내가 정어리라니!

(다시 경보종이 울리며 적색 신호등의 불빛이 번쩍인다. 마가 먼저 자기의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가 나 다 라 사색(死色)이 되어 떨다가 각자의 통 속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경보종과 신호등의 기능이 정지된다. 마가 먼저 나와 손으로 날개짓을 얼마 동안 하다가 그만둔다. 가 나 다 나온다. 라의 통을 주시한다. 라는 나오지 않는다.)

가: ㉡ 그는 다른 놈들에게 붙잡혀 값이 틀림없어.

나: 나도 당신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다: 그럼 냄새를 피우던 자가 잡혀 가 버렸으니, 이젠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가: 옳아. 우리는 마음을 폭 놓아도 되겠어.

나: (희색이 만면해지며) 이젠 죽을 염려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하겠소. 그 지긋지긋한 경보종 소리를 다시는 들을 필요가 없구.

가: (즐거운 표정으로) 조금 있으면 풍덩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 그는 원래 정어리였으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해. 우리가 인간도 아닌 그 생선을 위하여 동정할 까닭은 없어.

마: (아무 말 없이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라: (갑자기 통 뚜껑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와 흥분된 목소리로 외친다.) 여러분, 나는 소금에 절인 정어리가 아닙니다! 비록 그런 냄새야 나긴 합니다만, (기쁨에 발을 구르며) 사실은 내

가 들어 있던 통 속에 소금에 절인 정어리가 들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마 이 배의 선원 급식용이었겠지요. 통의 밑 바닥에 아직도 두 마리의 정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면 직접 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를 제외하고 모두 라의 통으로 몰려가 그 속을 들여다본다.)

라: 여러분! 내 말이 틀림없지요? 그렇지요?
다: 잘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당신이 정어리였으면.....
라: 통 속을 잘 살펴보세요.
가: (실망한 표정으로) 그의 말이 맞아. 정어리가 있구만.
나: 사실이야.
다: 나에게도 보여.

(라는 펄쩍 뛰며 좋아하지만 가 나 다는 썩 실망한 표정이다.)
㉔ 마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나: (가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가: (난처하다는 듯이) 나도 모르겠소.
다: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게 되었나요?
나: 사실은 그렇게 됐어.
다: ㉕ 조금 전까진 안전했었는데.....
나: (라를 가리키며) 저 자가 정어리로 되지 않는 바람에 그만 모든 것이 처음의 제자리로 되돌아갔잖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라: 무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요? 다시 제각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 조사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소?
나: 그건 이미 조사해 봤잖소?
라: 그렇구면. (잠시 침묵) ㉖ 그러나 저 여자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마를 가리킨다.) 왜 그런 생각을 일찍 못했을까? 우리에게 저 여자를 조사해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도.
다: 당신은 우리들이 저 여자를 정어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라: 내 말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요. 알겠소?

(가 나 다 라는 마에게 달려가 코를 그 여자의 몸에 대고 냄새를 맡는다.)

마: (남자들의 성가신 행동에 몸을 맡겨 둔 채 말없이 앉아 있다.)
가: 이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소. 찾을 수도 없구. 이 여자에게선 아무 냄새도 나질 않아.

(가 나 다 라는 마로부터 물러나와 그녀의 상자 아래 힘없이 주저앉는다.)

- 이강백, 「다섯」 -

44. ㉑~㉔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나’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야겠군.
- ② ㉒: ‘가’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야겠군.
- ③ ㉓: ‘마’는 냄새가 나는 인물을 찾으려는 의도가 드러나게 시선 처리를 해야겠군.
- ④ ㉔: ‘다’는 상황이 바뀐 것을 아쉬워하는 어조로 말해야겠군.
- ⑤ ㉔: ‘라’는 시민들의 관심이 ‘마’에게 집중되도록 손짓을 해야겠군.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다섯」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폐쇄된 공간에 있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자에 의해 통제되며, 이때 권력자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획일화된 행동만을 반복하면서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려고 한다.

- ① ‘신탐라국’으로 ‘밀항’한다는 점이 시민들의 약점으로 작용하겠군.
- ② 시민들이 머물고 있는 ‘배 밑 창고실’은 폐쇄된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냄새’가 나는 사람이 시민들을 위협한 상황에 처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겠군.
- ④ ‘경보종’을 울리는 ‘선장’은 시민들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로 볼 수 있겠군.
- ⑤ 시민들이 일제히 ‘통’ 속에 숨는 것은 획일화된 행동을 반복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